ASK 2017 인터뷰 ① '前 미국 부통령' 댄 퀘일 서버러스 캐피털 회장

"美·유럽 상업용 부동산에 매력적 투자 기회 많다"

유럽은행 대출 축소 지속 부동산 부실채권 시장도 유망 PEF 투자는 기업구조조정 주목

북핵 해결에 중국 역할 커져야 한반도 비핵화는 中에도 이익

한·미 FTA 재협상 길고 복잡한 과정 거칠 것

미국계 글로벌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댄 퀘일 회장(사진)은 "미국,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많다"고 밝혔다.

퀘일 회장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은 탄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징(대출 축소)이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실채권(NPL) 시장도 유망 투자처로 뜨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ASK 2017-글로벌 부동산·인프라 투자 서밋'에서 기조연설에 나서는 퀘일 회장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44대 부통령을 지냈다. 1999년 서버러스로 옮겨 2001년부터 글로벌투자담당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버러스 캐피털은 부실채권, 부동산, 사모펀드(PEF), 중견기업 대출 등 분야에 300억달러(약 34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퀘일 회장은 "북핵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전 세계 경기가 7년여 만에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고민은 성장세가 완만하고 이에 따른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런 환경에서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체투자가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버러스는 사모투자(PE) 분야에선 기업 분사, 산업 구조조정 등 복잡한 특수상황을 활용한 투자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퀘일 회장은 한반도 북핵 위기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북한만큼 위험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긴장감이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어 북한이 오판할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퀘일 회장은 "최근 대북 제재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 위협으로 동북아의 군비 증강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원하는 게 중국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퀘일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까지 언급해 일부 한국인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안다"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무역 파트너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친화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FTA의 어떤 변화도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ASK 2017 부동산·인프라 서밋

- 일시: 10월25일
- 장소: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www.asksummit.co.kr), ASK사무국 (02)360-4209

高배당 증권사 3총사 대신·신영·부국證 '기지개'

배당수익률 5~6%대 예상 PBR 1배 미만 '저평가' 자사株 보유량도 많아

대신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5~6%대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고배당 증권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신영증권은 지난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600원(2.71%) 오른 6만7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전날까지 이틀 연속 최고치를 돌파하자 유가증권시장 증권업종 지수는 이날 0.35% 올랐다. 상승곡선을 그리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며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증권주 가운데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대신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로 보면 대신증권은 0.64배, 신영증권은 0.82배, 부국증권은 0.75배 수준으로 청산가치를 밑돈다.

이들 증권사가 적잖은 규모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주가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보통주 기준으로 대신증권의 자사주 지분은 19.37%, 신영증권은 28.90%, 부국증권은 33.97%에 달한다. 기업들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사주의 지분가치만큼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가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소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경우 이들 증권사의 PBR은 0.6배 수준을 밑돈다.

대신증권 등의 배당수익률(주당배당금/주가)도 투자자의 눈길을 끈다. 지난해 배당수익률은 대신증권 5.04%, 신영증권 4.64%, 부국증권 6.10%였다. 지난해 상장사 평균 배당수익률 1.7%를 크게 웃돈다.

케이프투자증권이 지난달 28일 부국증권 주식 100만 주(지분 9.64%)를 282억원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사들인 이유도 이 같은 저평가 매력 때문이다. 임태순 케이프투자증권 대표는 "현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배당수익률이 높은 데다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국증권 주식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0월15일 오전 6시12분

국민연금 '내우외환'… 인력 이탈 이어 위탁운용사도 외면

사모펀드 운용사 경쟁률 2 대 1… 예년보다 저조 윤종필 의원 "해외 투자자 면담 횟수 절반으로 뚝"

올해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전주 이전 이후 핵심 운용 인력의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부 위탁 운용사의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도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투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진행하고 있는 미드캡(중견기업) 부문 사모펀드(PEF) 및 벤처캐피털(VC) 위탁운용사 선정 공모에 2배수의 운용사만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드캡 PEF는 3곳을 뽑는 데 6곳이 지원했고, VC 분야도 6개사를 뽑는 데 13~14개사가 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3년 전만 해도 국민연금의 위탁 운용사 공모가 통상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운용사 수가 급감했다는 평가다.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등으로 국민연금과 일하는 게 번거로워졌을 뿐 아니라 운용 수수료 등 조건도 다른 투자기관에 비해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VC 관계자는 "국내 VC 업계의 또 다른 큰손인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위탁 운용사의 허들레이트(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최소 수익률)를 없앤 반면 국민연금은 8%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 VC가 100억원을 위탁받아 8억원(수익률 8%)을 벌어줬다면 모태펀드는 투자수익의 20%인 1억6000만원을 운용사에 주지만 국민연금 운용사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국민연금 해외투자자 면담 횟수 (단위 : 건)

	2016년 상반기	2016년 하반기	이전 후 6개월 (17.3~17.8)
횟수	988	888	525
1개월 평균	164.7	148	87.5

*자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도 PEF에 출자하면서 허들레이트를 7%로 낮추고 관리 수수료를 올렸다"며 "정책 투자기관인 한국벤처투자나 산업은행과 달리 국민연금은 감사원이나 국회 눈치를 보느라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위탁운용사들도 국민연금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주 이전 이후 해외 투자자 면담 횟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월평균 165건에 달했던 해외 투자자 면담 횟수는 전주 이전 이후인 올 3월부터 6개월간 절반 수준인 88건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에 오면 무조건 국민연금부터 찾던 해외 운용사의 절반이 발길을 끊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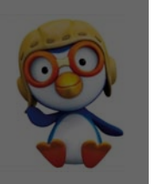
한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 뉴욕 본사 경영진이 아시아에 1주일 일정으로 출장을 오면 한국에는 하루 정도 머문다"며 "전주에 가려면 하루를 모두 국민연금에 써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서울에 있는 한국투자공사(KIC) 정도만 만나고 중국 일본 등으로 떠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국민연금을 찾는 해외 운용사는 A급 대형 운용사가 아니라 B급인 경우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유창재/정영효 기자 yoocool@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0월15일 오후 2시34분

"低출산 뚫고 高성장 하이킥"

출산·육아 기업, 잇달아 증시 노크



메디엔비즈·오콘·짐월드 등

출산·육아 관련 기업들이 기업공개(IPO) 채비에 나서고 있다. 저출산 시대지만 자녀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부모들의 수요 역시 꾸준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메디엔비즈는 미래에셋대우를 상장 대표주관사로 선정했다. 2003년 설립된 메디엔비즈의 주력 사업은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 '제이베베'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330여 개 병원과 제휴를 맺어 시장 점유율 80%(분만인원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관련 포털 서비스와 전자 산모수첩 등 산부인과 관련 콘텐츠 서비스 사업도 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오콘과 투바앤도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사진)를 제작한 오콘은 올 상반기에 미래에셋대우를 주관사로 낙점하고 내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바'와 '다이노코어' 제작사인 투바앤도 지난 7월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정하고 2019년 증시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완구 등 캐릭터 상품사업의 성장성이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오콘은 지난해 매출 133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전년(3억원)보다 14배가량 증가했다. 투바앤도 지난해 매출 257억원, 영업이익 113억원을 거뒀다. 투바앤의 영업이익은 전년(4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짐월드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짐월드는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인 짐보리를 국내에 도입해 전국에 2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입체 자석교구 브랜드인 맥포머스 등 완구와 교구의 제조·유통업도 하고 있다. 짐월드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지난해 매출 822억원, 영업이익 76억원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0월15일 오후 3시24분

주간 펀드 수익률

기준일: 2017년 10월13일. 단위:억원, %

유형별 수익률

유형	1주	3개월	6개월	1년	3년
◆국내					
국내주식	**2.72**	**2.89**	**13.20**	**18.42**	**20.81**
일반주식	2.41	1.76	11.73	15.53	13.51
중소형주식	1.20	-0.39	6.83	4.60	2.53
섹터주식	4.22	9.03	16.84	9.57	14.02
배당주식	1.76	0.83	12.32	18.19	24.64
기타주식	2.72	3.09	16.64	22.60	18.79
KOSPI200인덱스	3.59	4.48	18.83	29.78	38.41
주식기타인덱스	3.27	4.82	10.99	18.06	27.56
주식혼합	1.04	1.39	6.84	9.60	11.99
채권혼합	0.51	0.19	2.75	3.15	6.08
자산배분	1.78	1.77	8.28	11.55	16.34
국내채권	-0.01	0.24	0.58	0.44	5.98
국공채권	-0.02	0.12	0.36	-0.06	5.21
회사채권	0.01	0.43	1.02	1.54	6.66
일반채권	0.0	0.30	0.70	0.35	7.11
MMF	0.01	0.31	0.63	1.27	4.49
부동산	-0.14	16.02	21.86	4.88	21.14
ELF기타	1.92	5.50	9.67	26.91	23.41
특별자산	0.03	1.06	2.12	4.30	-10.58
◆해외					
해외주식	**2.75**	**8.84**	**15.41**	**22.10**	**30.22**
중국주식	3.84	12.38	22.0	26.58	38.23
브라질주식	4.0	21.56	16.26	23.98	0.07
러시아주식	1.61	14.02	10.60	20.95	23.23
미국주식	1.66	5.44	9.90	19.83	34.64
일본주식	1.53	6.15	15.84	26.93	39.61
인도주식	2.59	2.16	7.18	18.67	38.57
기타국가별주식	0.96	1.85	6.54	13.08	25.14
기타해외주식	-0.17	-0.48	-1.70	-1.42	
해외채권	**-0.01**	**1.22**	**1.99**	**2.94**	**8.90**
글로벌채권	-0.11	0.96	1.60	2.27	9.25
글로벌하이일드채권	0.18	1.74	2.65	6.72	14.32
북미채권	0.17	1.42	2.71	1.71	8.38
신흥국채권	-0.21	1.27	3.16	6.69	6.01
유럽채권	0.32	1.87	3.08	4.32	15.29
해외주식혼합	1.81	5.26	11.84	16.74	27.21
해외채권혼합	0.83	2.41	4.70	6.17	9.59
해외자산배분	0.81	2.55	4.40	8.60	15.89
해외부동산	-0.16	0.91	1.95	5.62	10.31
해외특별자산	0.02	0.32	-0.99	0.48	-9.39

운용사별 수익률

운용사명	1개월 수익률	1개월 동일유형 대비	1개월 평균자산규모	6개월 수익률	6개월 동일유형 대비	6개월 평균자산규모	1년 수익률	1년 동일유형 대비	1년 평균자산규모
◆국내주식									
동부	5.98	2.30	2,885	13.22	0.02	3,248	9.98	-8.44	3,389
플러스	5.67	1.99	332	19.51	6.31	318	22.78	4.36	299
멀티에셋	5.60	1.92	3,107	18.61	5.41	3,017	29.73	11.30	2,686
유진	5.56	1.87	1,061	17.90	4.70	1,117	27.05	8.62	1,167
교보악사	5.52	1.84	19,943	19.01	5.81	19,714	30.01	11.58	19,600
◆국내주식혼합									
하나UBS	2.92	1.31	4,660	8.64	1.80	4,664	10.73	1.13	4,712
하이	2.18	0.57	338	9.35	2.52	235	8.84	-0.77	187
◆국내채권혼합									
흥국	2.96	2.41	899	3.46	0.72	1,299	4.41	1.26	1,489
삼성	1.46	0.91	6,929	5.76	3.01	6,932	7.61	4.46	6,812
하나UBS	1.36	0.81	457	4.69	1.94	455	6.11	2.96	475
키움투자	1.15	0.59	1,820	3.60	0.85	1,999	4.37	1.21	2,221
◆국내채권									
골든브릿지	0.21	0.28	3,011	1.36	0.78	4,134	2.79	2.35	3,723
칸서스	0.12	0.19	439			155			78
유진	0.11	0.19	19,818	1.0	0.42	13,622	2.07	1.62	8,320
◆해외주식									
KTB	6.68	4.32	1,778	33.02	17.62	957	42.06	19.96	722
마이다스	4.08	1.72	527	15.0	-0.40	505	20.35	-1.75	484
동부	3.95	1.60	3,330	20.29	4.89	2,735	22.32	0.22	2,592
하이	3.72	1.36	1,377	19.59	4.18	1,378	23.79	1.69	1,393
KB	3.07	0.71	18,203	17.79	2.38	16,450	26.0	3.90	15,837
◆해외혼합									
한국	3.45	2.16	2,947	11.41	4.52	2,801	11.24	1.67	2,536
KB	2.83	1.54	872	7.49	0.61	537	7.76	-1.81	481
JP모간	2.75	1.45	1,268	7.94	1.05	1,263	7.26	-2.31	1,281
◆해외채권									
피델리티	0.33	0.51	2,506	3.09	1.10	1,730	5.36	2.42	1,540
JP모간	0.28	0.47	1,764	1.88	-0.11	1,898	2.92	-0.02	1,865
프랭클린템플턴	0.22	0.40	774	0.19	-1.81	818	6.58	3.64	838

펀드명	순자산	1주	3개월	1년	수익등급
◆국내주식(일반)					
동부바이오헬스케어1(주식)A	1,790	4.92	8.85	-1.75	4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자]1(주식)C-F	866	4.48	14.04	13.23	4
KTB마켓스타(주식)-C	1,039	4.14	5.27	22.23	3
하나UBS인Best연금1(주식)	6,362	3.94	4.67	19.60	3
NH-AmundiAllset차세대리더(주식)A1	752	3.92	5.04	24.59	2
미래에셋인디펜던스K-2(주식)C5	682	3.92	3.87	17.75	5
미래에셋디스커버리4(주식)C-A	1,130	3.90	3.81	17.97	5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1(주식)C-F	667	3.89	5.66	22.02	5
미래에셋디스커버리5(주식)C-A	601	3.89	3.84	18.14	5
삼성우량주장기(주식)(B5)	996	3.88	4.33	27.62	1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K-1(주식)C5	565	3.87	3.87	18.07	5
이스트스프링베스트그로쓰4(주식)	1,806	3.86	4.41	14.91	3
삼성코리아소수정예[자]1(주식)-(C5)	769	3.77	4.11	26.80	1
NH-Amundi아이사랑적립1(주식)C5	974	3.68	5.27	25.91	2
이스트스프링코리아인덱스[자](주식)C-F	518	3.68	4.66	30.70	1
멀티에셋코리아베스트다이나믹인덱스[자]1(주식-파생)-Cl	3,005	3.67	4.73	30.35	2
삼성인덱스프리미엄증권투자회사A(주식-파생)	721	3.65	4.41	29.90	2
삼성인덱스플러스1(주식-파생)(C1)	644	3.65	4.11	28.25	3
미래에셋마켓플러스[자](주식)C-F	652	3.64	4.62	30.76	1
동양모아드림인덱스[자]1(주식-파생)C-e	606	3.63	4.0	30.27	2
◆국내주식(기타)					
KB스타코리아레버리지2.0(주식-파생)A	630	7.20	8.60	61.65	
NH-Amundi코리아2배레버리지(주식-파생)A	3,000	7.19	8.61	64.21	
NH-Amundi1.5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A	2,013	5.49	6.69	46.38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2(주식)(A)	7,223	5.19	5.43	32.80	
◆국내채권					
GB단기채1(채권)C-C-W	2,547	0.02	0.67	2.79	1
유진챔피언단기채[자](채권)A	20,418	0.01	0.46	2.10	2
동양단기채권(채권)A	9,577	0.01	0.47	2.35	2
동양하이플러스채권[자]1(채권)A	5,818	0.01	0.52	2.0	4
KTB전단채(채권)C-C	4,012	0.01	0.36	1.68	3
◆국내주식혼합					
하나UBS인Best연금[자]1(주혼)	1,714	2.30	2.61	10.63	3
뉴개인연금주혼S-1	1,388	2.29	2.53	10.50	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전환형[자]1(주혼)C-C	826	1.96	2.02	12.18	4

펀드명	순자산	1주	3개월	1년	수익등급
◆국내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자]1(채혼-재간접)C-C	1,213	1.56	1.40	11.56	3
삼성퇴직연금인덱스40[자]1(채혼)-C	946	1.38	1.75	10.52	1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자]1(채혼)C-C-P2	857	1.34	2.05	9.38	3
삼성퇴직연금코리아대표40[자]1(채혼)C	3,138	1.27	1.63	9.18	2
흥국공모주로우볼체움플러스1(채혼)A	552	1.24	1.69	5.21	3
미래에셋퇴직플랜40[자]1(채혼)C-C	2,047	1.19	0.98	6.57	3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자]1(채혼)C-C	1,161	1.19	0.93	6.41	3
◆해외주식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주식-파생재간접)C-A	597	8.34	13.10	29.17	3
맥쿼리차이나Bull1.5배[자](주식-파생)C-A	609	8.05	13.75	30.79	4
KB스타차이나H인덱스[자](주식-파생)C-E	738	5.44	8.95	20.67	4
KTB중국1등주[자](주식)C-A	1,089	5.32	20.20	47.32	1
삼성누버거버먼차이나[자]H(주식-재간접)-A	2,582	5.24	12.19	37.78	3
동부차이나1(주식)A	754	5.01	19.82	36.78	3
하나UBSChina[자]1(주식)A	654	4.96	16.90	37.19	2
미래에셋TIGER차이나A레버리지증권ETF(주혼-파생재간접)(합성)	2,549	4.70	19.13	45.77	2
슈로더차이나그로스[자]A(주식)C-A	2,252	4.69	14.99	30.66	4
신한BNPP봉쥬르차이나2(주식)(C-A)	5,288	4.63	14.07	29.94	2
삼성차이나[자]1(주식)(A)	976	4.61	11.88	29.08	2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자]1(주식)(C-C1)	1,542	4.59	13.78	28.84	2
하이도시화속의아시아우량기업[자]1(주식)A	745	4.49	9.23	23.36	3
에셋플러스차이나리치투게더연금[자]1(주식)C-C	613	4.45	14.59	32.02	1
KB중국본토A주레버리지[자](주식-파생재간접)A	1,456	4.42	12.32	37.81	4
◆해외채권					
피델리티유럽하이일드[자](채권-재간접)C-A	1,085	0.41	2.94	8.31	1
피델리티아시아하이일드[자](채권-재간접)A	1,078	0.35	1.80	5.55	3
블랙록아시아퀄리티(채권-재간접)(H)(A)	960	0.33	1.87	2.43	3
◆해외혼합					
미래에셋인사이트[자]1(주혼)C-A	4,280	3.22	7.02	25.31	2
흥국차이나플러스[자]1(H)(채혼)A	766	2.57	6.43	3.47	5
슈로더이머징위너스[자](주혼)C-A	2,210	2.42	11.07	27.34	2

*순자산 500억원 이상, 1년이상 운용된 공모펀드 대상, 1주일 수익률 상위순

*수익등급은 동일 유형내 1년 수익률을 1~5등급으로 구분

*클래스 펀드는 대표펀드만 표시, ETF 제외, 운용규모는 클래스펀드 순자산 총합

KFR 한국펀드평가